月刊 金大基
3월호

Work-Book
2주 3차 정답표

*** 정답은 문항 옆에 붙어 있는 미주 번호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46) ⑤

㉮~㉰는 모두 대립적인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는 '밤'과 '태양'이라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는 '잿더미'와 '개나리, 소녀'의 이미지 대립을 통해 전쟁의 참상 속에서 순수한 존재를 발견하고 있으며, ㉰는 '차가운 비'와 '뜨거운 물, 불'의 대립을 통해 시적 화자의 한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147) ⑤

[A]는 <보기>에 보이지 않던 '소녀의 얼굴에 이빨이 빠진 모습'이 묘사되면서 화자와 대상의 공간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을 준다.

[오답 피하기] [A]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보기>를 이어진 문장 하나로 표현하면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는 일상적인 어법을 뛰어넘은 시적 표현이며, '죄 하나도 없다'는 '소녀가 죄가 없다'는 의미와 '소녀의 이빨이 모두 빠져 하나도 없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중의적인 표현이 되었다.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가 '언덕을 내리달리는'으로 바뀌면서 소녀의 모습이 좀더 생기 있게 그려지고 있다.

148) ③

'유년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는 살아남아'는 유년 시절의 삶과 현재의 삶이 단절되지 않고 한의 정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49) ⑤

㉠에는 따뜻하고 행복했던 과거를 상실하여 한탄하고 있는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시의 정조가 ⑤에 드러난다. '마을아, 억센 풀아, 무너진 흙담들아'와 같은 표현을 통해 화자가 고향을 상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으며, '돌아가 고향 하늘에 홀로 글썽이리'라는 말로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0) ③

ⓒ는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나도 돌아선다. /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는 표현은 그러한 심리를 뒷받침한다.

151) ②

(가)의 화자는 밤길을 가고 있을 임이 안전하기를 달에게 기원하고 있다. 이것은 화자와 임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화자는 지금 철령에 있고 임은 구중궁궐에 있다. 역시 화자는 현재 임과 떨어져 있다. (다)의 화자 역시 임과 떨어져서 임을 염려하거나 그리워한다. 그러므로 세 작품의 공통점은 화자와 임 사이에 공간적 거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152) ③

(가)에서 화자가 달이 높이 돋아 멀리 비추기를 기원하는 것은 임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에서 '양춘' 곧 따뜻한 햇볕을 임이 계신 곳에 보내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임이 추울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153) ②

'구름'은 화자의 마음을 멀리 떨어져 있는 임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소재이다. (다)에서 '매화'도 화자의 마음을 멀리 떨어진 임에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154) ⑤

'편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ᄒᆞ리'는 편작처럼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오더라도 임금을 잊지 못해 애태우는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편작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155) ⑤

(다)의 화자는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죽음을 초월하여 임을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노래한 것은 서정주의 '춘향유문'이다. 이 시에서 화자는 멀고 먼 저승이라도 임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미치지 못할 만큼 먼 곳은 아니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156) ③

이 작품의 중심적인 사건은 형우를 비롯한 담임 선생님, 같은 반 학생들이 온갖 폭력을 행사하던 최기표를 평범한 학생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표면적으로는 기표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표를 도움을 받아야 할 불쌍한 학생으로 낙인찍어 나간다. 기표가 칭찬을 받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 이같은 낙인이 찍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답 피하기] ①, ② 길들이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④ 도와주기의 과정이다. ⑤ 기표를 따돌리는 행동이다.

157) ④

서술자 '나'는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넘겨 짚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추측했던 것의 진위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 "담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지?"라는 말에 이같은 말하기 방식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서 "그런데?"라고 말함으로써, 다음 말을 재촉하고 있다.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궁금했던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암시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158) ④

<보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위'라는 말이 관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④의 '심장'은 이 문맥에서는 인체의 장기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용어로 볼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폐부(허파), 마음의 깊은 속을 세게 자극하다. ②애(애간장), 몹시 안타깝고 초조하여 속이 타다. ③ 줏대 없는 언행을 하다. ⑤간담(간과 쓸개), 몹시 놀라서 섬뜩하다.

159) ③

<보기>의 설명을 통하여 (A)의 내용이 인물의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표는 다른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부끄러움 많은 불쌍한 학생의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기표의 처지를 암시하는 말로는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고향에 대한 그리움, ② 옛날 애인에 대한 그리움, ④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⑤ 가정의 경제적인 몰락 암시

160) ①

이 작품에 형우의 기표에 대한 적대감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그 같은 적대감이 부질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사건 전개를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반응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피하기] ② 기표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③ 이 작품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실의 왜곡 등은 현실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④ 서술자 '나'는 작품 속 인물이면서도 사건의 전개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도 뚜렷이 말하지 않고 있다. ⑤ 부분적으로는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 구조의 문장으로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다.

161) ③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자. 심씨는 취선과 화빙선이 얘기를 나눈 걸 알고는 화진과 화빙선이 화춘의 장자 자리를 빼앗으려고 모의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화진을 오라 해서 마당에 꿇어 앉혀 놓고 화춘의 적장자 자리를 빼앗고자 누이 빙선, 종 취선과 함께 불측한 일을 꾀했다고 추궁하지. 이에 대해 화빙선은 '큰집 작은집이 모두 혈육이니 이 자리를 빼앗고 저 사람과 협력한다는 말씀은 만만부당하나이다.'라고 대답했고.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심씨가 화빙선과 화진을 못 살게 구는 것은 가문 내에서 자신의 아들 화춘의 장자로서의 권한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 따라서, ③이 이 글에 그려진 갈등의 근본 원인이지.

162) ①

<보기>는, 부모의 뜻이 의리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따르고, 이치를 해치는 것이라면 기운을 화평하게 하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간하여 반복 개진함으로써 부모가 이치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야. 즉, 부모가 잘못되었으면 자식은 온화 온화한 말로 반복해서 그 잘못을 얘기해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 ①을 보자. 진에게 심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어머니가 의리를 깨닫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성껏 얘기를 하라는 거니까 <보기>의 관점에서 한 말로 적절해.

163) ④

[A]에서 화춘은 진이 남매(화진, 화빙선)가 성 부인과 합심하였으니 지금 당장에는 제거할 수 없으며, 유생이 이 변을 알고 얼굴빛이 좋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참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 즉, 화춘은 상황을 근거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지. 반면 심씨는 성 부인의 생각이 음흉하여 자기 모자를 죽일 것이며, 진이 유생에게 자신의 부덕함을 누설하였다고 했어. 이는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화춘에게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대화의 특성을 바르게 말한 것은 ④지.

164) ②

'오륜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지간이 더욱 중하니,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라는 화진의 말을 통해, 이 글이 윤리적 덕목을 내세워 교훈을 주고 있음(③)을 알 수 있어. 하지만 이 글에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 따라서, ②는 이 글을 읽고 나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아.

165) ①

① : '면종복배'는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함을 이르는 말이야. 하지만 이 글에서 화춘이 화진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은 없지. ② : '동병상련'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위해 주는 걸 말해. 화진과 빙선은 심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같은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적절하지. ③ : 심씨는 화진이 불측한 일을 꾀했다고 하며 하지도 않은 일로 그를 다그치고 있지.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끌어내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경우로, '견강부회'가 어울려. ④ : '천양지차'는 아주 차이가 심함을 이르는 말이야. 화진과 화춘은 형제이기는 하지만 화진은 부모형제의 도리를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화춘은 형제를 괴롭히는 도리를 모르는 인물로 나오니까 적절하지. ⑤ : '각골지통(刻骨之痛)'은 뼈에 사무치게 원통함을 이르는 말이야. 빙선은 자신을 괴롭히는 심씨로 인해 이렇게 느낄 수 있어.

166) ②

한 편에서는 익숙한 음식이 다른 편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시큼한 포도주에 익숙한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고유 음식에 익숙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로 비교될 수 있고, 반면 시큼한 포도주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비교될 수 있다. 그리고 시큼한 포도주를 이르는 막포도주는 우리에게는 익숙하나 외국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음식과 비교될 수 있다.

167) ①

㉠은 원초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원초적 이미지란 한 개인이 어떤 사물을 최초로 자신의 의식세계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①은 서정주의 "신발"이며, 아버지가 처음 사주신 그 신발이 원초적 이미지로 형성된 것이다.

②는 김종한의 "낡은 우물이 있는 풍경"으로서 윤사월의 어느 날, 낡은 우물가에 비친 모춘(暮春)의 정경과 그 곳에서 시적 자아가 한 아낙에게 물을 얻어 먹으며 느끼는 순수한 인정미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③은 김관식의 "석상의 노래"로서 석상을 소재로 하여 한없는 그리움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백제 가요 "정읍사"나 신라 시대에 박제상의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望夫石) 설화와 접맥되어 있다. ④는 조지훈의 "봉황수"로 퇴락한 고궁의 옥좌 앞에서

몰락한 왕조와 국권의 상실을 회고하면서 비극적인 역사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⑤는 김수영의 "눈"으로 눈의 순수성, 비속물성, 영원성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더러운 일상성을 씻어내라는 권유를 하고 있다.

168) ③

㉡은 기업적 방식이 재래식 방식을 위협하는 내용이다. ③은 우리 나라가 고유의 음식인 김치를 상품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그것을 상품화시킨 일본이 종주국으로 잘못 인식되는 사례이다. 이는 기업적 방식이 재래적 방식으로 만든 각종 물품이나 음식을 위협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 나라가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이전의 고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던 것이 점차 공장화, 기계화되어 가는 것, 즉 기업적 방식으로 대량 생산되어 기존의 방식이 위협받는 것을 적절히 말해주고 있다.

169) ②

각 지방의 재래식 포도주는 나이를 먹어 가며 특별한 맛을 지닌 막포도주로 변해 간다. 농부들은 이런 포도주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에서 ②를 유추할 수 있다.

170) ⑤

남부 사람들이 북부 사람들의 까맣게 탄 외모를 볼 때, 그리고 자기 마을 포도주를 마시는 타지방 사람들을 볼 때 동질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미소를 짓게 된다. 태성이와 영수는 힘든 마라톤 경기를 함께 마쳤다는 동질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미소를 짓는 것이다. ①은 고마움의 미소이다. ②는 마지막 이별의 상황에서 인사 대신 지을 수 있는 미소이다. ③은 특정 상황에서 일부러 짓는 가공의 미소이다. ④는 쓰라림의 의미를 지닌 미소이며,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려는 미소이기도 하다.

171) ①

①은 '사람들은 일상성의 세계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두 번째 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는 세 번째 문단의 앞부분에서, ③은 마지막 문단에서, ④는 두 번째 문단의 끝에서, ⑤는 네 번째 문단에서 그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172) ②

글 전체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문제 의식을 지니고 사는 것, 즉 일상의 세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문제 의식을 가지고 통찰하며 사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좌우명은 ②이다.

①은 초지일관(初志一貫: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감)의 자세를, ③은 쉬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를, ④는 인내를, ⑤는 노력을 강조하는 좌우명이다.

173) ⑤

①, ②, ③, ④는 모두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더럽고 잘못된 허위 의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찰이 안전을 강조하며 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것은 올바른 것으로서 이러한 허위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174) ②

문제 의식은 지식인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므로 이것이 없는 지식인은 지식인이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에는 '그 신분이나 지위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자질이 결여된 존재'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학자의 핵심적인 자질은 '연구열', '탐구열' 등이지 '융통성'이 아니므로 ②는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175) ③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회의(懷疑)의 의미는 '의심을 품음'이다. 참고로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라는 의미의 어휘는 '후회(後悔)'이다.